



알리는 말씀

1. 2027년 1월 우간다 단기 선교팀에 조인할 단원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찬양팀, 특수교사, 어린이 성경학교 교사, 소셜워커, 의료봉사팀(한방/양방/치과), 전도단원, 등

장애 관련 소식

최근 《Autism in Adulthood》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대학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폐 스펙트럼 학생은 약 13만 5천 명에서 28만 6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이전에 알려졌던 수치보다 훨씬 많은 규모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자폐 진단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거나 장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들도 실제 자폐 학생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진은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무슬림 청년의 신앙고백

수나(Asharaf Ssuuna)는 조이우간다가 사역을 막 시작한 2015년 처음 만난 고등학교생이었습니다. 우리 선교회에 일하러 온 첫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수나가 자신이 무슬림인데 우리 선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자신은 대학에 가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싶은데 학비가 필요해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일년을 함께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동안 종종 자신의 근황을 이메일로 알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공부 인도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과정이 궁금했습니다. 이번 우간다 방문에서 수나를 만났습니다. 너무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간다 사역의 첫 열매를 무슬림 청년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이우간다는 지금까지 많은 청년들의 꿈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수나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보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친 후 김박사님과 마마 진회님께서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김박사님은 제 삶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는 이런 간절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실 수 있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김박사님은 저를 위로하시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잠언을 펴서 한 구절을 읽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격려하시며, 제 삶의 상황도 반드시 달라질 것이라



기도제목나눔



1. 조이우간다 파트너 현지 학교선정과 특수교육 교실 건축위해
2. Children's Church 를 통해 미래의 지도자를 배출하도록
3. 27년 1월 선교 동역자를 위해
4. 장애선교 헌신자를 주시옵소서

후원방법

1. Check로 보내실 경우:
Pay to the order of "Joy Center, Inc.". Memo: _____
2. Zelle, Paypal, Venmo의 경우:
joycenter@hotmail.com
3. 홈페이지를 통하여
www.joycenter.com

We appreciate your gift of love in support of Joy Center, which is a non-profit organization 501(c)(3).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신앙생활의 첫 번째 큰 장애물은 부모님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싫어하셨고, 캄팔라의 교회들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사기 집단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큰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전화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네가 나를 죽이는구나." 하지만 결국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네가 선택한 길이라면... 알겠다."

저는 계속해서 교회에 성실히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께도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큰 상처를 받으셨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 삶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코로나19로 봉쇄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온라인 예배와 성경공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교회가 다시 문을 열자마자 저는 제자훈련 과정에 깊이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아내를 제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제자훈련 과정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아들도 있습니다.

(4 페이지의 긴 간증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Joy Uganda SunStar Scholarship

오늘의 한 아이가, 내일의 빛이 됩니다

Joy Uganda SunStar Scholarship은
우간다의 유망한 아이들과 청년들이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자신의 꿈을 이루며,
가정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도록 돕습니다.



교육의 기회
학비 지원을 통해
교육의 꿈을 이루도록



멘토의 성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성장하도록



품과 비전 실현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의 리더를 세우도록



지역사회 변화
가정과 공동체를 바꾸고
우간다의 밝음이 되도록

Joy Uganda SunStar Scholarship 에 동참해 주십시오

수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간증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조이우간다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Children's Church도 같은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단지 간식이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장차 자신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Joy Uganda Scholarship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며, 한 세대의 미래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수나는 우리의 첫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를 맺는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Joy Uganda Scholarship은 단순한 장학사업이 아닙니다. 복음을 다음 세대에 심고, 우간다의 미래를 세우는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은 한 아이의 학비를 넘어, 한 영혼의 삶과 한 나라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학생이 내일의 교사, 엔지니어, 목회자, 지역사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나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조이우간다 장학금 씨앗을 심어주실 분은 김진희선교사께 연락 주세요(714-253-2359)